

에잇세컨즈, 11월 8일까지 '집콕모델챌린지 캠페인'

삼성물산 패션부문 에잇세컨즈가 11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소비자 모델을 선발하는 '집콕모델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본인의 특색 있는 데일리룩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선발자 30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을 제공하며 이들의 '셀프 집콕 화보' 중 투표를 통해 베스트 화보를 선정한다. 정영욱 기자



이건희 회장 타계 | “큰 별 잃었다” 재계 지도자들 조문 행렬



세계의 큰 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하루 종일 재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부터)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뉴스시스

과로사 대책 잇달아 내놓는 택배업계 한진, 심야배송 중단...롯데, 분류인력 1000명 투입

택배업체들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0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1월부터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하루 적정 작업량을 정하기로 했다. 택배기사가 업무 시작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3, 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도입한다.

한진은 11월 1일부터 업무 강도가 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한다. 미배송 물량은 다음날 배송한다. 또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실시한다. 2022년 충북 진천 지역에 첨단 물류 터미널을 개점하는 등 택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정영욱 기자 jiy@donga.com

김승연 회장 “가장 슬픈 날...친형님 같이 모셨다”

정의선 회장 “1등 정신을 심어주신 분”
조원태 회장 “위대한 분 잃어서 작잡”
박용만 회장 “이재용 시대 활짝 열리길”
정지선·손경식 회장 등 거물 대거 조문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찾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시스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는 재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기업 총수와 경영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어른이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삼성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잘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9시에는 고인의 입관식이 진행됐다. 입관식은 흥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후 첫 조문객인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김기남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시작으로 재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오전 빈소를 찾아 10분간 유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박 회장은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장례식장에 도착해 5분 여간 조문을 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또 앞으로의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아 10여분 간 머물렀다.

삼성 출신인 황정규 전 KT 회장도 조문했다. 황 전 회장은 “어른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이사장은 “평창을 리믹스 때 총리를 하며 고인을 모시고 유치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 세계 일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보여준 큰 업적이 있어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신 분이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오후에도 조문의 발길이 계속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삼성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어 빈소를 찾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위대한 분을 잃어 마음이 착잡하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이명희 회장은 아들 정용진 부회장, 딸 정유경 총괄사장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을 만나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범삼성가인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전날 빈소를 조문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멘토로 많은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오후에 빈소를 찾았다. 약 10분 간 머물며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한 김 회장은 “가장 슬픈 날이다”며 “친형님같이 모셨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78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4일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8일이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삼성가 선영 또는 수원 선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흥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등이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아프리카TV, 독도의 날 음악 콘서트 방송 진행

아프리카TV는 25일 오후 3시 경북 울진 국립 해양 과학관에서 독도의 날 120주년을 기념한 38번째 ‘아·뮤·쇼(아프리카TV 뮤지션을 소개합니다)’를 진행했다.

‘아·뮤·쇼’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과 음악 BJ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콘서트 형식의 공식 음악 방송이다. 독도의 날 120주년을 기념한 이번 특집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함께 독도를 지켜 나가자는 의지를 국악 등 우리의 소리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 장소는 경상북도청과 울진군의 장소 협조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독도와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북 울진에서 진행됐다.

24일 울진 후포 등대 인근에서는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가 음악 BJ들과 소통하고, 악기연주를 배우기도 하는 ‘락게스(樂 게인스크림·사진)’가 펼쳐졌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독립 앞둔 ‘위메프오’...1년 반만에 30배 성장

11월 1일 독립 출범을 앞둔 ‘공정배달 위메프오’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위메프오는 서비스 출시 약 1년 반만에 오픈 첫 달과 비교해 거래액이 30배 성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점 업체 수도 월평균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0월 기준 위메프오에 입점한 업체 수는 4만 5000여 곳에 달한다. 이재용 위메프오 대표 내정자는 “독립 법인으로 시작하는 내달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1번가, 신한금융투자과 제휴 통장 출시

11번가는 신한금융투자와 입금 혜택에 증진결제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신한금융투자 11번가 증진통장’을 출시했다. 제휴 통장은 100만 원 이내 계좌 보유금액에 대해 최대 연 4%를 SK페이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본 혜택으로 연 3%를, 신한금투 채널에 로그인하면 1%를 추가로 제공한다. 계좌 혜택은 11번가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개설고객에게 제공된다. 쇼핑 혜택도 준다. 11번가의 선물 증진결제 서비스 ‘SK페이 머니’에 제휴 통장으로 충전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5%를 SK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가입은 11번가와 SK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고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회장님의 선물? 삼성-CJ 해묵은 앙금 해소되나

조카 CJ 이재현 회장도 조문 상속재산 싸고 선대들 소송전 3세 이재용-이재현 관계 좋아 조문 계기 화해무드 될지 관심

삼성그룹과 CJ그룹의 해묵은 앙금이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범삼성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찾아 조문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고 이명희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대립했다. 고 이명희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은 후계구도를 두고 경쟁했던 장남 이명희 전 명예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1973년 이후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CJ의 갈등은 이명희 전 명예회장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면서 더 깊어졌다. 2012년 이명희 전 명예회장은 고 이명철 삼성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해 독식하려 했으며 1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 2심에서 잇따라 완패한 이명희 전 명예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승계와 상속 등을 놓고 이어진 오랜 갈등은 범삼성가의 경영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재현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화해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사촌 관계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관계는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재현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8년에는 CJ그룹이 삼성 출신인 박근혜 CJ대한통운 부회장을 영입하며 두

그룹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박근혜 부회장의 영입 전 이재현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경 빈소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부인 김희재 여사와 자녀 이경후 CJ ENM 상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내외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재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약 1시간 30분 가량 빈소에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재현 회장은 고인을 기리며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으로 가족을 무척 사랑하셨고 큰 집안을 잘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라고 추도의 뜻을 밝혔다.

정용욱 기자 sadzoo@donga.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뉴스시스

